



이전 전시회에는 계명문화대 김용원 교수가 수집한 수련 50여종이 우리 전통 가옥을 무대삼아 선보였다.

하루 중에서도 햇살이 가득한 한낮에만 눈을 여는 꽃.

올 여름엔 수련(睡蓮)을 실컷 볼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25일까지 세계의 수련을 한 자리에 모은 '세계 수련전'이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서울종합활영소에 위치한 운당(雲堂)에서 열리고 있다. 조선시대 정통시대부 가족을 재현한 운당의 너른 풀과 대청마루 가득 50여종의 각종 수련이 모여 그윽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계명문화대 김용원 교수가 최근 몇 년간 수집한 수련들을 내놓은 이 전시회는 수련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공간. 언뜻이 없는 도심의 가족 정원, 아파트 베란다 등에서도 쉽게 수련을 가꾸며 즐길 수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작게는 요강만한 것부터 크게는 어른 두 아홉 크기 정도의 울기에 물을 가득 담고 그 안에 수련이 담긴 화분을 담으면 바로 간이 연못이 된다. 비료주거나 물갈이에 대한 기본 상식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가꿀 수 있다.

전시회를 마련한 김 교수는 "수련은 자기의 절개를 지키며 스스로 절제된 삶을 살 줄 아는 매우 아름다운 꽃"이라며 "조금만 더 연구하면 수련의 대량생산을 위한 육묘법을



# 수련, 절제된 아름다움의 극치

남양주 서울활영소 '운당'서 세계전시회

## 토종 외 美·네덜란드 등서 들여온 외래종도 선보

상용화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수련을 가까이 두고 즐기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쯤까지 꽃을 열고 나머지 시간은 잠을 잔다. 그래서 수련(睡蓮)이다. 개화시기도 일반 연꽃이 한 달 가량인데 비해 4개월(5월~9월)에 이른다. 원래 우리나라의 토종 수련은 6종류 정도. 그러나 언뜻과 날지대가 사라지면서 대부분이 멸종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다. 각시수련의 경우 황해도 강산곶

일대에서만 자생하는 희귀식물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는 강원도 고성에서도 자생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했다. 그러나 어리연꽃이나 노랑어리연꽃, 남개연, 외개연, 개연 등은 전국 넓에서 흔히 보이던 것이지만 요즘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제주도에서만 자생하는 품어리 연꽃도 마찬가지.

그래서일까. 운당에서 만나는 토종 수련들은 예쁘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갓난아기의 입술처럼 작고 앙팡진 모양새가 눈으로만 보기에 뭔가

부족함을 자아낼 정도다. 전시회에 나온 외래 수련들은 주로 미국,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등지에서 들여온 것들이다.

30여점의 석창포도 만날 수 있는 이 전시회는 (사)우리문화가꾸기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와 경기도, 대한불교조계종이 후원 한다. 24일에는 '연꽃과 한국문화', 25일은 '연꽃 기르기' 연과 건강'을 주제로 한 강좌가 운당에서 열린다. (031)579-0640

임연태 기자 yilm@buddhapa.com



우남 스님역의 박영규(사진 왼쪽)와 김 신부역의 차인표(사진 오른쪽)가 보리울 축구단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축구소재 화합·상생의 삶 담은 영화

### '보리울의 여름' 제작 발표회

축구를 매개체로 화합과 상생의 삶을 그린 영화 '보리울의 여름' 제작 발표회가 10일 남산 하얏트 호텔 리젠시움에서 열렸다.

'보리울의 여름'은 축구선수 출신의 김신부(차인표 분)가 이끄는 생당어린이 팀과 우남 스님(박영규 분)의 우남사 어린이팀이 힘을 합쳐도 대표급인 읍내 축구팀에 맞선다는 내용의 휴먼 코미디였다. 이미 지난 5일 전북 김제에서 크랭크인해 오는 11월 개봉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민용 감독과 원장 수녀님의 장미희씨, 기술교를 맡은 이용수 前 국가대표팀 기술위원장, 10여명의 아역배우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차인표씨와 함께 영화를 이끌어갈 한 축인 박영규씨는 "20년 전 무명시절 스님 역을 맡은 후 처음 맡은 스님역할이라 부담이 되지만 최선을 다해 연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김주필 기자 jfm@buddhapa.com

## 진각종 불교문화강습회

불교음악·꽃꽂이 등 프로그램 다양

불교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불교문화강습회가 열린다. 진각종은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6~31일, 9월 9일~14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황리현과 대구 진각회관에서 각각 전통종 제작 강습회 및 서원가 강습회를 개최한다.

전통종 연구회에서 주관하게 될 강습회는 괄조, 배접, 채색자연을 통한 수박등, 전통종, 창작종 제작 강습으로 진행된다. 국악관련악단 '오느름'이 주관하는 서원가 강습회는 '불교음악여행'이란 주제로 불교음악사 이론과 서양, 국악 발생법, 오대서원 등 서원가 배우기 등과 작은 음악회로 진행된다. 이번 강습회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진각종은 내년부터 강습회 개최지역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꽃꽂이, 다도, 사진 등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한영우 기자

## 전주서 세계소리축제

국내외 156팀 참가... 24일~9월 1일

세계 각국의 종족음악을 통해 인간의 목소리로 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울음을 찾아볼 수 있는 '2002 전주세계소리축제'가 24일~9월 1일 열린다.

국내외 1백56개 팀이 참가하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지난해에 이어 '소리 사랑 온누리'이다. 문화의 장벽을 넘어 목소리의 원초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다.

국내외 합창단이 참가하는 '합창', 몽골 예과르드 - 캐나다 등 11개국

민속음악을 소개하는 '미지의 소리를 찾아서', 신인부터 명창까지 두루 출연하는 '집중기획 판소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별 초청프로그램으로는 중국 최고의 공연단인 돈황예술극원이 중국 당나라 시대의 음악과 춤을 화려한 의상과 정교한 무대로 복원한 '돈황악무', 티베트의 명상 음악가 나왕케축과 대금·생황·단소 등의 협연이 관심을 모은다. 또한 판소리에 비길 수 있는



세계소리축제 종교합창 부분에 나서는 전북불교대학바리새원합창단.

중국 인도 몽골 일본 등 아시아 4개국의 1인 구비서사요(口誦故事)도 감상할 수 있으며, 창극 '비가비 명창 권심득' (전북도립극단), 작곡한 최명희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음악극 '혼혈' (전주시립예술단) 창작극도 무대에 오른다. (063)280-3324 www.jsf.or.kr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a.com

모두 격외(格外)의 본분(本分)을 노래하고 있다. 그런데 그 상징이 함으로 절묘하다. 함도 전달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이 드러내지니, '진흙소(泥牛)', '나무말(木馬)', '허공의 빠다귀(虛空)', '세상 뱀(蛇)' 등이 모두 표현한 것이다. 흔히 그것들이 '불성(佛性)'이나 '본래면목'을 상징한다고 하지만, 그런 아무래도 상관없다. 초하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기묘한 상징들이 가리키는 격외의 시원한 소식의 맛을 느껴보고, 다가가는 것이다.

선시의 특징이기도 하며, 여러 선사들의 시에 되풀이해서 등장하는 이런 표현들의 끝고를 뜯어 사람은 조주선사로서 그는 <삼전(三轉)>에서 이렇게 말했다. '금불은 응광(應光)을 건너가지 못하고, 목불은 불을 건너가지 못하고, 토불은 물을 건너가지 못한다.' 뒤에 백암선사가 토불을 달아 '진흙부처가 물을 건너가면 풀이되고, 나무부처가 불을 건너가면 타버리고, 쇠부처가 응광(應光)을 건너가면 녹아 버린다.'고 해설했다. 그런데 위의 선시에서는, 진흙소가 물 속에 빠져서 풀이되지 않고, 오히려 물 위에서 유유자적 발을 감고 있다. 목마도 버젓이 달리고 있는데, 구름 속보다는 차라리 불 속이라 하는 것이 더 나왔을 상심다. 물에 녹지 않는 흙, 불에 타지 않는 나무, 응광(應光)에 녹지 않는 쇠, 그것이 바로 '나' 라고 한다. 세상 밖을 향해 부르는 노래, 선시는 '인간자존'의 선언이다.

문헌학평론가

## 소요태의 宗門曲

물에 녹지않는 흙, 불에 타지 않는 나무, 용광로에 녹지않는 쇠, 그것이 바로 '나'

외로운 화의 울음소리 세상 밖으로 퍼지네

물위의 진흙소가 달빛을 받들고, 구름 속의 나무말이 바람 타고 달리네. 옛 부처님의 노래는 허공의 빠다귀라

## 미얀마 아우미따지 대학원

# 제2회 명예 (박사) 학위 취득 연수

세계불교 중심지이며 불교의 극락이라 불리는 미얀마 아우미따지 대학원에서 제1회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의 요청에 의해 다시 한번 연수교육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 ❖ 교육과목 - 백침술(100%확실하게 살베는 속요법) 정통사주학, 관상학, 독성법, 비방단침술, 특수기공도통법
- ❖ 지원자격 - 학력, 나이 관계없음(선착순 25명)
- ❖ 제출서류 - 등본2통, 사진5장, 여권, 비자, 지원서1통
- ❖ 접수기간 - 양력 7월 15일 ~ 8월 26일까지. (일정은 앞당겨 질 수 있습니다)
- ❖ 교육기간 - 양력 9월 1일 ~ 6일 까지 (5박6일)



전화 031)867-4131, 011-214-4135, 018-370-4133

MYANMAR, YANGON

yangon office : 5b 3b floor, kamayut, townshlp 2ayarthlri rd,

아우미따지 불교성도대학 한국분원 사무국

##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 기초저 자광원

#### 위치 및 시설개요

-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주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 정원 : 24명~30명 내외
- ◆ 시설개요 : 본 건물 → 방규모(약 5명) 24실 (각실 인토폰 설치) → 오락실, 체력실, 제1물리치료실, 팔각정자
- ◆ 부대시설 →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법당, 식당
-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 연락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 기초저 자광원의 특징

- > 남한산성 지역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남이다 부처님을 모시고 영불교 기도장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성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초저를 마련하였습니다.
-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음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살기편 노인들을 위한 기초저입니다.
-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 타 사회복지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편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